2020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시민 강좌 <조각의 모든 것>

양은희 미술사학자 :

마르셀 뒤샹에서

제프 쿤스까지

2020. 5. 30 (4회차)

✱ 강의 내용

이번 강의는 20세기 현대조각의 주요 작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0세기 초반 브랑쿠지의 작업은 사물의 본질을 포착하며 추상조각을 발전시켰고, 이후 추상 조각이라는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반면에 이번 강의에서 다룰 마르셀 뒤샹(1887-1968)의 작업은 조각이라는 개념을 해체한 작가이다. 근본적으로 회화, 조각의 전통적 개념을 거부하고 '시각예술'이 아니라 '개념'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가진 작가이다. 그런 점에서 보통 다다 운동의 맥락에서 뒤샹을 설명하곤 하나 그의 전체 작업을 보면 다다에서 출발하여 예술의 개념적 측면을 부각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남성용 변기를 전시장에 가져온 <샘>(1917)부터 시작하여 병걸이, 의자 등 레디메이드 작업들, <대형 유리>, <여행용 가방>과 주요 작업을 통해 그가 현대문명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삶도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다는 점을 다룬다. 특히 그의 <여행용 가방>(1941)은 수백 점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어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장되는데, 그 과정을 지휘했던 미술관장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시대적 맥락을 살펴본다.

이어서 뒤샹과 동시대를 산 달리, 자코메티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조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추상조각을 대표하는 데이빗 스미스(1906-1965)를 통해 브랑쿠지 이후 조각의 언어가 변해간 과정을 추적한다.

1960년대 이후 예술은 팝 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대지미술 등 다양한 태도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미 뒤샹을 통해 조각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경향은 이러한 다양한 미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조각가와 화가가 구분되지 않고 두 분야를 넘나들며 예술의 연장선에서 평면 작업과 입체 작업을 제작했으며, 형식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주제도 과거보다 훨씬 다각화 되었다.

먼저 소비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등장한 팝 아트의 입체 작업과 대중적 취향과 고급 예술이 접목된 맥락,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이후 확장된 사례를 다룬다. 앤디 워홀(1928-1987)의 상자들, 클래스 올덴버그(1929-)의 입체 작업들, YBA의 다미엔 허스트(1965-)의 죽음을 다룬 작업들, 제프 쿤스(1955-)의 풍선형식의 형상들을 통해 고찰한다.

이어서 미니멀리즘의 즉물적 형식과 관객이 지각적 참여를 요하는 작업들과 포스트미니멀리즘으로의 진화를 다룬다. 로버트 모리스, 도널드 저드, 리처드 세라 등 대표적인 미니멀리스트의 기하학적 형태들을 살펴보고, 이후 에바 헤

세의 포스트미니멀 작업, 더 나아가 대지미술로 연결되는 탈조각적 양상을 살펴본다.

뒤샹이 시작한 예술의 개념적 전환은 20세기 후반 다른 작가들로 이어지는데, 특히 요셉 보이스(1921-1986)는 퍼포먼스, 설치, 입체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예술은 인본주의를 실천하는 매개체라고 보았던 그의 철학을 살펴본다. 백남준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가 '유라시아'라는 개념을 고찰하고 '사회적 조각'을 주창한 맥락을 통해 예술과 정치의 접목을 꿈꾸며 20세기 후반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다룬다.